

선거명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명	서울특별시 양천구를	
후보자명	김용태	기호		소속정당명	새누리당
공약번호: 1	공약 제목 :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착공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도로 양변의 도시계획 변경 김포공항-구로 연결 전철사업 원안대로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p>○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제물포터널 사업)은 신월 IC에서 여의도까지 지하 50m 깊이의 대심도터널 방식으로 건설되는 대규모 민자투자사업입니다. 제물포터널 사업은 2008년부터 추진되어 2010년 ①경제개발연구원(KDI)의 사업타당성 심사, ②서울시 재정심의위원회 심의, ③기획재정부 사업 적격성 및 타당성 심의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p> <p>착공에 필요한 모든 절차 끝난 상황</p> <p>2011년 ④3자 공고, ⑤우선협상 대상자 지정, ⑥기본 설계 VE 착수 등 필요한 모든 절차를 진행해 왔지만 정작 막판에 착공에 돌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p> <p>그러나 이 사업은 조금 늦더라도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모든 필요한 절차를 다 마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p> <p>안 할 이유도 없고 안 할 수도 없습니다</p> <p>제물포터널 사업이 착공되면 현재 슬럼화 되어 있는 도로 주변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이 지역에 오피스타운, 쇼핑지대를 유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렇게 해서 유동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현재 중단된 우리 신정동과 신월동 일대를 관통하여 구로로 이어지는 전철 지선 사업을 기필코 착공시키겠습니다.</p>					
공약번호: 2	공약 제목 : 항구적 수방대책 사업 마무리				

물차는 동네의 오명을 벗는  
예산 1650억원 규모의 사업  
차질 없이 완료시키겠습니다

- 2010년 추석 연휴 전날의 대폭우로 5천여 세대가 침수된 참상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내 없인 살아도 장화 없인 못 산다’는 오명을 벗겨내는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기획재정부, 환경부, 소방방재청, 서울시, 양천구와 함께 거의 한 달에 2회에 걸친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소집, 수방대책 마련을 다그쳤습니다.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 가까스로 돌파

피말리는 줄달리기 끝에, 드디어 2011년 연말 국회에서는 양천·강서 지역의 항구적 수방대책사업으로 총 1650억원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대심도수로터널 및 각종 수방사업이 공청회 등의 소정의 절차를 마치고 곧 발주에 들어갑니다.

총 공사기간 3년 반 동안 순조롭게 공사를 진행해, 지긋지긋한 수해의 악몽을 종결시킬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공약번호: 3	공약 제목 : 서부트럭터미널 복합개발 완성
---------	-------------------------

지하는 터미널, 지상은 복합개발  
토지분쟁 소송 후 즉시  
개발을 시작하겠습니다

- 많은 분들이 서부트럭터미널 부지가 서울시나 양천구 소유의 땅으로 알고 계십니다만 엄연한 사유지입니다. 게다가 이 부지는 그린벨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서울시나 양천구에서 이렇다하게 손을 쓰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트럭터미널이 이전해오라고 요청할 지자체도 없고 말입니다.

저는 새로운 해법을 찾기 위해 서울시 및 양천구 그리고 당사자인 주식회사 서부트럭터미널과 끈질기게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소송중인 토지분쟁이 끝나면 개발 착수

그 결과 ①녹지를 해제하되 개발이익을 투명하게 환수하고 ②주민불편을 덜기 위해 터미널은 지하에 건설하며 ③지상은 다양하게 복합개발하는 해법을 마련했습니다.

마지막 난관은 터미널 부지 내 3필지가 다른 지주 소유인 바, 터미널과 지주간에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가 이기든 간에 재판이 끝나자마자 그간 준비한 해법대로 터미널부지 개발계획을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공약번호: 4	공약 제목 : 양천을 지역에 명문학교 유치
---------	-------------------------

대일학원-SH공사 사이에

신정3지구 학교부지 곧 계약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화룡점정을 찍겠습니다

- 양천구의 최대 문제는 정치적 경계인 양천 갑과 을 지역의 경제적·교육적 격차가 크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육특구라는 명성은 갑 지역만의 얘기였습니다.

학교 주변 CCTV 설치 확대를 통한 방법 강화

그간 저는 을 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필사적으로 뛰었습니다. 특히 학부모들이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에 적극 참여, 대대적인 청원 작업을 벌인 결과 관내 모든 학교에 걸쳐 천정형 에어컨 설치, 이중 방음창 설치 등이 완료되었습니다.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2008년 대비 4배 이상 방범 CCTV가 설치되어 학생

안전 환경이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CCTV의 설치를 꾸준히 늘리겠습니다.

학교가 동네 가치를 올립니다

신정3동 이펜하우스 단지 내 학교부지에 최고 수준의 명문 외국어고등학교와 관광디자인고등학교가 이전해 오기로 확정된 바, 학교법인과 양천구청 간의 ‘실행협약’이 지난 3월 13일 체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 부지 주변의 주민들 8천여 분이 ‘SH공사는 조성원가대로 학교법인에 토지를 넘겨달라’는 청원을 저에게 보내주셨고, 이를 근거로 SH공사와 끈질긴 협상 끝에 이를 성사시켰습니다.

명문고등학교 교사의 신축과 완공 마지막 단계까지 필사적으로 노력하여 양천을의 가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공약번호: 5	공약 제목 : 항공기 소음 소송비 일부 반환
---------	--------------------------

고등법원서 원고인 주민들 패소  
대법원도 패소할 경우 반환받도록  
앞장서겠습니다

○ 2006년에 시작된 항공기소음피해 배상 소송은 정신조씨를 대표자, 오정현씨를 수임변호사로 선정하고, 약 3만여 분에 달하는 주민들로부터 소송대리비로 5만원씩을 거두어 재판을 시작하였습니다.

2009년 원고인 주민들이 일부 승소하였고, 3만여 분이 추가로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말 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간 2심 재판부는 ‘소음피해범위 산정’을 놓고 제3자이면서 객관적인 서울대 소음환경연구소에 감정의뢰하기로 하였으나, 원고 측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도 지면 소송대리비는?

원고측 변호사는 대법원에 항소하였지만, 그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대법원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오면 주민들이 내신 소송대리비  
일부를 반환받는 절차를 책임지고 주민들과 함께 진행시키겠습니다.